

유해란, LPGA 투어 첫 우승... 세계 랭킹 '굉충'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첫 우승을 달성한 유해란의 세계 랭킹이 수직 상승했다.

올해 LPGA 투어 신인인 유해란은 2일 미국 아칸소주 로저스에서 끝난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총상금 230만 달러)에서 정상에 올랐다. 한국 선수가 LPGA 투어 정상에 선 것은 고진영이 지난 5월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에서 우승한 이후 5개월 만이다. 유해란은 이번 우승으로 3일 발표된 여자 골프 세계 랭킹에서 직전 37위보다 9계단이 오른 28위에 이름을 올렸다.



▲ 지난 2일 아칸소주 로저스에서 열린 LPGA 투어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 우승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는 유해란. 사진=AP/뉴시스

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다. 유해란은 이번 우승으로 신인상 포인트 150점을 추가하며 한국 선수로는 2019년 이정은 이후 신인상을 받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 유해란은 우승 후 "솔직히 올해 우승할 수 있을까 했는데 내 샷을 믿고 플레이를 하다 보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미국에 와서 적응하는 데 힘들었는데, 이전에 다섯번 톱10에 들었을 때 계속 후반에 무너졌던 생각이 났다. 이번에도 내가 내 손으로 우승을 놓치면 너무 허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후반에는 계속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가짐을 잡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투어 입문 후 첫 승을 따낸 유해란은 올해 신인상 부문

미국 농구 '드림팀' 합류하려는 슈퍼스타들

미국 농구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슈퍼스타들이 나서고 있다.

4일 '점프볼'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막을 내린 2023 FIBA(국제농구연맹) 농구 월드컵에서 4위에 머물렀다. 2019년 중국 대회에서도 7위를 기록, 결국 '2연속 노메달'이라는 굴욕을 맛봤다.



▲ 왼쪽부터 르브론 제임스, 케빈 듀란트, 스테픈 커리. 사진=nbac.com

국제대회에서 연이어 자존심을 구긴 미국은 2024 파리 올림픽에 '드림팀'을 구성해 명예를 되찾고자 한다. 르브론 제임스(레이커스)가 그 시작을 알렸다. 'ESPN'은 "제임스가 올림픽 출전 희망 의사를 내비치며 슈퍼스타들을 모으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제임스는 3번의 올림픽(2004, 2008, 2012)에 출전해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따낸 바 있다.

NBA 슈퍼스타들도 응답했다.

3일 케빈 듀란트(피닉스)가 "내년 올림픽에 출전할 것"이라며 참가를 선언했고, 스테픈 커리(골든스테이트) 역시 "올림픽 참가는 아직 해보지 못한 일이다. 나는 꼭 거기에 있고 싶다"라고 참가 의지를 드러냈다.

앤서니 데이비스(레이커스), 카와이 레너드(클리퍼스), 제이슨 테이텀, 제일런

브라운(이상 보스턴), 데빈 부커와 브래들리 빌(이상 피닉스), 드레이먼드 그린(골든스테이트) 등도 드림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밖에 데마 드로잔과 잭 라빈(이상 사카고), 카이리 어빙(델러스)과 도노반 미첼(클리블랜드), 줄리어스 랜들(뉴욕), 뱀 아테바야(마이애미) 등도 관심을 표명했다.

누가 최종 12인 명단에 들지 모르지만, 그 누가 됐든 '드림팀'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2030 FIFA 월드컵 사상 첫 3대륙 6개국 개최



▲ 2030년 월드컵이 열릴 6개국의 국기(왼쪽부터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모로코, 포르투갈, 스페인)와 월드컵 사진=FIFA 홈페이지 캡처

국제축구연맹(FIFA)의 2030년도 월드컵 대회가 사상 최초로 아프리카, 유럽, 남미 3대륙의 6개국에서 공동 개최된다.

FIFA는 4일 2030년도 월드컵 개최국으로 아프리카의 모로코와 유럽의 스페인, 포르투갈을 선정했으며 아울러 100주년을 맞아 개막전 3경기를 남미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드컵은 1930년 우루과이에서 첫 번째 대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2030년 100주년을 맞는다.

이날 FIFA 평의회는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에 동의했다며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이례적으로 100주년 기념행사를 가지고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에서 경기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아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남미 3개국은 각각 한 경기씩 개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모로코는 6번의 시도 끝에 월드컵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모로코는 1994년, 1998년, 2006년 단독 개최권 입찰에 실패했으며 2010년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기회를 빼앗겼다. 2026년에도 다시 도전했지만, 결국 미국·캐나다·멕시코가 공동 개최하게 됐다.

세계은행(WB)은 보고서를 통해 2030년 월드컵이 극심한 가뭄과 인플레이션으로 압박이 커지고 있는 모로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전통 대낚시 무료교육

• 미국에서도 낚시를 배우실 분 모집합니다 •

- * 개인이 무료교육 봉사합니다.
 - 초보자 환영 / 주말에 같이 출조하실 분
 - 캠핑 낚시 / 벙에돔 바다 낚시
 - 낚시에 관한 모든 교육
- <이메일 문의하세요>
abocado3228@naver.com

